

안악지역 근대교육과 백범 김구의 역할·위상

김형목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2. 안악지역의 근대교육 실태
 - 1) 사립학교설립운동
 - 2) 야학운동의 전개
3. 안악 근대교육에서 백범의 역할·위상
4. 맺음말

1. 머리말

개항 이래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계기를 맞았다. 천주교와 기독교 전래는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일상사 변화를 수반하였다. 조계지나 개항장 부근 주민들은 외래문화에 대해 두려움과 호기심 어린 ‘이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는 밑거름이었다. 이질적인 문화 유입과 근대교육은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질서와 부러움’은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점차 일상사로 편입되었다.¹⁾ 학교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은 인식 변화와

1) 김형목, 「한말 ‘정재홍’의 현실인식과 의열투쟁」, 《인천학연구》 5, 인천학연구원, 2006, 37-38쪽; 김형목, 「개항기 다문화 유입에 따른 사회변동과 일상사 변화- 부산과 인천을

더불어 수혜 받고 싶은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과거제 폐지를 비롯한 새로운 관리임용제도는 신학문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생활현상이었다.

지역에 따라 변화 속도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변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가 하는 의지는 중요한 변수였다. 안악지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은 이를 가능하게 했다. 선교사에 의하여 전래된 원예작물 재배나 영농기술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이곳에 유명한 과수원이 산재한 원인은 여기에서 찾아진다. 신진 부유층으로 성장한 이들은 자신들 이익추구에만 머물지 않고 육영사업(育英事業)에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안악 3대 부호’로 일컬어지는 김효영·원명로·최용권 등은 대표적인 인물이다.²⁾ 안악지역이 계몽운동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을사늑약 직후 고조된 위기의식은 외부 세계 인사들과의 소통 확대와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었다. 곧 사립학교설립운동·야학운동 등은 ‘단순한’ 근대교육 시행 차원을 넘어 민족의식이나 국가정신을 일깨우는데 매우 유효했다. 이를 주도한 중심단체는 바로 안악면학회(安岳勉學會)와 해서교육총회(海西教育總會)로 주목된다.³⁾ 그리고 민족교육을 견인한 ‘메카’는 두 단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된 양산학교(楊山學校)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안악지역 계몽운동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대부분은 계몽단체·교육단체 등과 관련된 인물들의 활동상과 사상적인 변화에

중심으로-], 《역사와교육》 14, 역사와 교육학회, 2012.

2) 안악군민회, 『안악군지』, 1976. 96쪽; 이경남, 『포우 김홍량전』, 도서출판 알파, 2000, 30-51쪽.

3) 한수익, 「해서교육총회」, 《한국기독교사연구》 24, 1989; 조현욱, 「안악지방에서의 애국 계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38-42쪽.

초점을 맞추었다. 최광옥·김홍량·장웅진·노백린·김구·최명식·백남훈·이광수 등은 주요 대상이었다. 특히 백범은 교육사상 형성이나 황해도에서 전개한 계몽활동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범일지』에 나타난 서술과 부분적으로 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⁴⁾ 다른 사람들 회고록이나 평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스스로 인생역정을 정리할 때 ‘신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이와 같은 한계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를 안악지역 근대교육의 실태와 백범 김구의 역할·위상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곳 근대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황해도에 근대교육이 도입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 안악지역 사립학교설립운동과 야학운동 전개양상 현황을 추적하였다.⁵⁾ 마지막으로 안악지역 근대교육사에서 백범의 역할과 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안악지역 근대교육의 실태

1) 사립학교설립운동

황해도 근대교육은 서북지방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특히 개신교단에서 주도하였다.⁶⁾ 선교사업 중 교육활동은 새로움에 대한 자극제였다. 난생 처음 보

4) 최기영, 「백범 김구의 애국계몽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한규무, 「1900년대 김구의 황해도 장려·문화·안악 이주와 계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5) 김형목, 「한말 해서지방 야학운동의 실태와 운영주체」, 《백산학보》 61, 백산학회, 2001.

6)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출판부, 1971, 14-43쪽;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

는 화보판 잡지 등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선교거점이 마련되면서 부속시설로 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기도실이 곧 학교였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이곳으로 하나 둘 몰려들었다. 글 읽는 소리와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종래 서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전혀 달랐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였다.⁷⁾ 어색하고 생소하던 예배당 종소리도 변화를 상징하는 징표로 다가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관이나 현지인들을 크게 자극시켰다. 해서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은 장련의 사립송천학교(이후 해서제일학교로 개칭)였다.⁸⁾ 즉 1896년 김윤방은 이 학교를 설립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노력하였다. 학교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학생들이 부른 「애민가」는 당시 지향하는 바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

우리동국 사람들아 / 이민가를 드러보오
 나라에 부강지업 / 빅성으로 말미암고
 어와우리 빅성들아 / 진충보국 안홀쇼냐
 위민부모 어진덕화 / 여보적즈 흐오시며
 우리빅성 부요흐면 / 국가홍왕 절노되지
 오천만년 무강지후 / 여민동락 흐여보세

세대출판부, 1973, 75-86쪽;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185-197쪽; 윤건차(심성보 외 역),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청사, 1987, 172-196쪽; 김형목,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앙사론》 6, 중앙사학연구회, 1997, 65쪽; 정영희,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혜안, 1999, 156-173쪽.

7) 《독립신문》 1896년 8월 20일자 논설.

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문화투쟁사)》 8, 1976, 270쪽.

턴부지직 동포되어 / 호싱지덕 일반이라
 나라에 독립지권 / 빅성으로 힘냅느니
 불힘이 병화괴근 / 싱령도탄 불샹흐다
 위민즈목 붉은성교 / 사민여샹 홀지어다
 상하일심 기화힘써 / 문명진보 구경코져.⁹⁾

나라의 부강은 곧 백성들 노력 여하에 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당연히 인간된 자로서 도리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의 흥망은 저절로 됴이 당연한 자연적인 순리이자 이치가 아닌가. 나라의 독립도 역시 백성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모두 개화·자강에 노력하여 문명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근대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어 1900년 장련에 거주하는 유림(儒林) 등도 의연금(義捐金)으로 소학교를 세웠다. 이들은 운영비를 의연하는 등 인민개진(人民開進)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 운영비 부족으로 교사를 초빙할 수 없어 폐교에 직면하자, 군수 윤구영은 자신의 교장 취임과 예산 지원을 학부에 호소하였다.¹⁰⁾ 이듬해 토산군의 유재희·박영규 등도 전(前)관찰사 윤길구와 군수 김용배의 후원금·의연금으로 소학교를 세웠다. 이들은 학생 30여 명을 모집하는 한편 한두운을 교사로 초빙하였다.¹¹⁾

한편 을사늑약은 사립학교설립운동이나 야학운동 등 근대교육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였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몽운동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의무교육 실시

9) 《독립신문》 1896년 8월 18일자 광고, 「송천 스립학교 학원들 이민가」.

10) 《황성신문》 1902년 12월 27일자 잡보, 「查報校況」.

11) 《황성신문》 1901년 2월 16일자 잡보, 「補助設校」.

를 정부에 촉구하여 중추원에서 이를 가결(可決)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²⁾ 하지만 통감부는 ‘시세와 민도’를 내세워 의무교육 시행에 부정적이었다. 근대 교육에 의한 민지계발(民智啓發)은 한국인 현실인식 심화와 더불어 저들의 ‘원대한’ 식민지화 계획을 무산시키는 크나큰 장애물로서 인식하였다. 이에 「보통학교령」을 공포·시행하는 등 근대교육 진전을 가로 막았다. 이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저급한 식민지형 양성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대한협회나 서우·한북흥학회(이후 두 단체는 서북학회로 통합)·기호흥학회·교남교육회 등도 의무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고취시켰다. 이와 더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이라고 밝혔다.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지름길은 곧 근대 교육과 부국강병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현안을 널리 확산시키는 동시에 세력을 규합(糾合)하고자 각지에 지회를 설립 인가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¹³⁾

당시 도내에 설립된 지회는 해주에 대한자강회·대한협회, 평산에 서북학회, 곡산에 대한협회, 재령에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배천·김천·장련에 각각 서북학회 등이었다.¹⁴⁾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지회는 해주와 재

12) 유영렬,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조항래 편저,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80-86쪽에 채수록; 김형목,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앙사론》 6, 중앙사학연구회, 1997, 73-74쪽.

13) 김형목, 「기호흥학회 경기도 지회 현황과 성격」, 《중앙사론》 12·13, 중앙사학연구회, 1999.

14) 이송희,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1985, 80쪽;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148쪽; 정관, 『구한말기 민족계몽운동연구』, 형설출판사, 1995, 82-83쪽; 유영렬, 「대한협회 지회 연구」, 《국사관논총》 67, 국사편찬위원회, 1996, 62-65쪽; 전재관, 「한말 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대한자강회·대한협회·오학회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10, 숭실사학회, 1997, 170-172쪽.

령에 각각 설립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서북학회 지회였다. 주목되는 부분은 재령에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지회가 모두 조직된 사실이다. 이는 곧 재령지역이 계몽단체 조직에 의하여 활발한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¹⁵⁾ 실제로 재령은 을사늑약 이전부터 근대교육에 의한 민족 의식 양양에 선구적이었다. 대한협회 해주지회는 강습소와 야학교 설립을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결의하고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傾注)하였다. 또한 학구(學區)의 기준을 정한 후 이를 군청과 관찰부에 보고하는 등 해주지회는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다.¹⁶⁾ 군이나 면을 단위로 조직된 민회·민의소·농무회 등도 주민 부담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에 노력하였다. 의무교육회·면학회·장학회 등도 적극적이었다. 민지계발(民智啓發)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의무교육 일환으로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을 시행하는 계기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점차 도내로 확산되어 나갔다. 전치룡 등은 장련에 기독교양학교, 해주군수 한이형은 향교 재산 일부로 여자교육을 위한 정내학교를 설립하였다.¹⁷⁾ 도인권은 재령에 양원학교를 설립하는 등 변화에 부응하고 있었다. 재령군 북불면 유지들은 면립학교(面立學校)인 보강학교·운수학교·진초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등 근대교육 확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¹⁸⁾ 이는 주민들 부담에 의한 일종의 ‘의무학교’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수

15) 《大韓每日申報》1906년 8월 14일자 잡보, 「三氏有志」, 10월 23일자 잡보, 「載寧民望」; 편집부, 「회사요록」, 《서북학회월보》2, 1908.

16) 대한협회, 「지회회록절략(해주)」, 《대한협회협보》12, 1908, 56쪽;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11일자 학계, 「海郡講習」.

17) 《대한매일신보》1908년 7월 23일자 잡보, 「전씨열심」, 1909년 2월 27일자 잡보, 「연설격절」; 《大韓每日申報》1908년 2월 27일 잡보, 「海郡女校」; 《황성신문》1908년 3월 6일자, 「正內學校」.

18) 《황성신문》1910년 4월 2일자 잡보, 「熱心哉兩學生」.

용 규모·교육시설·교육내용·교사진·운영비 등은 매우 미흡하였다.¹⁹⁾

신천군수 김우희는 관내 면장·유지들과 군립(郡立)인 승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설립된 지 불과 1년만에 운영난에 처하자, 그는 유지들과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읍내에 거주하는 각 호당(各戶當) 9전과 그외 5전씩의 ‘의무교육비’ 부과를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방안 중 하나였다.²⁰⁾ 이후 의무학교가 점차 설립되는 등 근대교육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평산군수 이규홍도 유지들과 여러 사립학교를 세웠다.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강습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그는 교육운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²¹⁾

학교는 대부분 개인 사랑방이거나 마을회관이었다. 운영비도 일부 유지신사(有志紳士) 의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확보할 대안도 부재한 형편이었다. 더욱이 교육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교과서나 근대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거의 없었다. 물론 일부 지방관들은 여가를 이용하여 명예교사로서 자원하였으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時務策) 일환으로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주목된다. 나아가 노동담론과 더불어 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해주군에 조직된 대한노동회 지회는 이를 반증한다.²²⁾

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사 양성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장련군 장의택 등은 사범강습소를 설립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필요한 교사 양성에 나섰다. 그는 장련보통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유지들과 각 면리마다 야학

19) 김형목, 「야학 규모」,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20)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2일자 학계, 「升明復明」;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일자 학계, 「승명학교확장」.

21) 《황성신문》 1910년 5월 25일자 잡보, 「平山의 新學蔚興」.

22) 《황성신문》 1909년 4월 13일자 잡보, 「勞動會盛況」.

등을 운영하였다. 공립학교 내에 설립한 노동야학은 불과 5-6일만에 학생이 180여 명에 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교사는 그를 비롯하여 이기중·임국승·백남훈·장원용·이용호·황성필·허동 등이었다.²³⁾ 안악군 유지들은 안악군 면학회를 조직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노력하였다. 이들은 동리마다 의무학교를 설립할 정도였다.²⁴⁾ 운영비는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의무교육비로 마련하였다. 교사양성은 3개월과 6개월 숙성과정인 사범강습소 운영으로 귀결되었다.²⁵⁾ 안악군수 이인규도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사숙·서당 등을 폐지하였다. 대신 학무회를 조직하는 등 근대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⁶⁾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지방은 근대교육의 중심지로서 부각되었다.

특히 서우학회는 급증하는 사립학교 설립에 부응하여 야학속성사범과를 설치하는 등 만전을 꾀하였다.²⁷⁾ 서북학회도 서울에 본교인 협성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한강 이북지방을 중심으로 협성학교지교(支校)를 승인하는 등 근대교육을 주도하고 나섰다. 이는 교육 내용과 과정의 통일을 통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애국정신과 국가의식을 고취하려는 민족교육과

23)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5일자 잡보, 「장씨교육」; 《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15일자 잡보, 「張氏熱心」, 8월 4일자 잡보, 「勞働校設立」; 《황성신문》 1907년 12월 3일자 잡보, 「趙師名談」, 1908년 7월 7일자 잡보, 「海西講習」, 8월 2일자 잡보, 「勞働學의 盛況」.

24) 김형목,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앙사론》 6 참조.

25)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자 잡보, 「사범강습」; 1908년 8월 26일자 잡보, 「안악강습소시험」·「해서교육총회」;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23일자 잡보, 「師範講習」; 1908년 7월 7일자 잡보, 「講所新設」, 7월 19일자 잡보, 「崔氏高義」, 8월 26일자 잡보, 「安郡講習試驗」; 《황성신문》 1908년 8월 27일자 잡보, 「五百戶의 一校」; 안악군 민회, 『안악군지』, 1976, 39쪽.

26) 《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16일자 잡보, 「學會組織」;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6일자 잡보, 「학회조직」.

27) 서우학회, 「학도모집광고」, 《서우》 2, 1907. 1; 《만세보》 1906년 12월 12일자 잡보, 「西友學會師範夜學」, 12월 25일자 잡보, 「西友會 設校」.

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²⁸⁾ 안악·수안·봉산·연안·웅진군 등지에 서북학회 지회는 공식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는 협성학교지교로 인가를 받았다. 이 지역 계몽운동가들은 이미 서북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의미한다. 시찰위원 파견과 신입 회원의 등록 현황은 이를 반증한다.²⁹⁾

특히 안악군은 근대교육의 ‘메카’로서 부각되었다. 안창호는 안악인들의 열성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안창호는 교육운동 발흥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악군처럼 전국 13도에서 교육운동이 활성화된다면, 그는 머잖아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다”³⁰⁾라 했다. 이와 같은 찬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서지방에 설립된 주요 사립학교 수는 1906년 13개교, 1907년 21개교, 1908년 75개교, 1909년 43개교, 1910년 21개교에 달하였다.³¹⁾

한편 안악군수 정현철은 1902년 소학교를 창설한 후 의연금 6천여 원을 모았다. 이를 기본재산으로 삼아 청소년을 모집하자 수십 명이 일시에 호응하였다.³²⁾ 안악지역에 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최광옥·김홍량 등이 1906년 12월경 안악면학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해서·서북지

28)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대출판부, 1982, 80쪽; 이송희,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 81-82쪽.

신용하는 신천의 승명학교와 웅진의 화산협성학교, 이송희는 화산협성학교를 각각 누락하였다. 화산협성학교는 1909년 10월 이전에 인가된 지교였다(서북학회, 「회사기요」, 《서북학회월보》 1-16, 1909, 67쪽).

29) 이송희,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 75-77쪽.

각 사립학교의 설립자·임원·교사 등과 2,400여 명에 달하는 회원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정식회원은 실제로 이보다 적었다. 지회원과 임원진에 대한 중복 파악은 이를 반증한다. 이후 계몽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지회원은 기록된 숫자보다 많았다.

30) 안악군민회, 『안악군지』, 1976, 98쪽.

3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문화투쟁사)》 8; 김영우, 「한말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Ⅱ)」, 《논문집》 3, 공주사범대학, 1986.

32) 《황성신문》 1902년 1월 23일자 잡보, 「創立小校」.

방 일대에 교육과 산업 진흥을 통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교사양성 기관인 사범강습소는 평양과 안악에 각각 세웠다. 이는 야학운동을 포함한 근대교육운동의 기반을 확대·강화시키는 요인이었다.³³⁾ 면학회는 제2회 사범강습회 종료 이후 해서교육총회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초대회장은 송중호였다. 백범 김구는 학무총감이자 양산학교 운영 책임자로서 이 일대 문화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다.³⁴⁾ 그는 황해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학교 설립을 권유하는 한편 사범강습소로 입학할 권유하였다. 단체의 목적은 근대교육을 통한 해서·서북인의 문화와 정신적인 부흥이었다.³⁵⁾ 특히 신민회의 외곽단체로서 실업가·교육가·학생 등의 회원을 확보하는 통로였다. 이 단체는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독립운동단체로서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1909년을 기점으로 대두된 독립군기지건설론은 이를 반증한다.

기독교 영향이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실은 치성회 활동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安岳郡에 樵童牧豎가 互相結隊호야 釋誠會를 設立호고 夜則該郡南山에 登陟호야 國家에 中興을 上帝의 祈禱호다호고 老人長者들이 或聚飲於酒家라가 褻被兒童之諫止호야 境內酗酒之風이 頻絶이라호니 是乃天心之所發이라. 豈有他人之指導哉아 此其可異者 三也라.”³⁶⁾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제는 이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책동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3) 《大韓每日申報》1907년 10월 11일자 잡보, 「教育學序」; 박은식전서편찬위원회, 『박은식전서』하,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225-226쪽.

34) 안악군민회, 『안악군지』, 1976, 107-108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8, 246-248쪽; 이경남, 『포우 김홍량전』, 91~99쪽.

35) 《大韓每日申報》1909년 9월 10일자 광고, 「學員募集廣告」; 김구, 『백범일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1947, 182-18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8, 270-271쪽, 최명식, 『안악사건과 삼일운동과 나』, 22쪽.

36) 《大韓每日申報》1907년 9월 29일자 논설, 「韓國之進化程度」.

安岳郡稚誠會 蕪童牧堅들이 南山에 登 ㅎ야 國權回復 ㅎ기 爲 ㅎ야 上帝의 祈禱 ㅎ다함은 本報에 已揭어니와 去二十一日夜祈禱之際에 日巡查가 巡行 ㅎ다가 突入 ㅎ야 二兒를 捕捉 ㅎ야 分派所에 嚴가 牢囚 ㅎ고 質問하되 爾等 이 上帝의 爲國祈禱云 ㅎ니 上帝가 有何指導乎아 ㅎ고 鍛鍊이 滋甚 ㅎ되 此 兒等이 終不屈伏則如是者五日後에 放釋하앗다더라.³⁷⁾

초동목수들은 남산에 올라가 국가중흥을 위한 기도회를 올렸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곳 교육운동 진전과 무관하지 않았다. 안악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은 양산 학교를 비롯하여 봉삼학교·문화학교 등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사립학교설립운동이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임을 간파한 일제는 「사립학교령」³⁸⁾ 시행과 더불어 이를 탄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미비한 교육시설, 교사 부족,³⁹⁾ 경비 부족 등으로 많은 사립학교는 통·폐합되는 비운을 맞았다.⁴⁰⁾ 더욱이 침탈 가속화로 민중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의병전쟁 확산도 일제

37) 《大韓每日申報》1907년 11월 3일자 잡보, 「蕪童被捉」; 《대한매일신보》1907년 11월 3일자 잡보, 「치성회열심」.

38) 대다수 자강론자들은 이 법령 시행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였다. 교육 체제·내용·시설 등이 개선됨으로 교육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할 정도였다. 이러한 궁극적인 요인은 바로 이들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다(《대한매일신보》1908년 9월 22일자 논설, 「교육이 발흥할 도짐」; 《大韓每日申報》1908년 9월 22일자 논설, 「教育勃興의 兆」 참조). 즉 이들은 일제 침략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社會進化論에 매몰된 사회 분위기를 반증하는 부분이다.

39) 《대한매일신보》1908년 11월 3일자 기사, 「학교는 잇셔도 교수가 업는 혼탄」, 12월 6일자 논설, 「교육가 제공에게 경고함」; 《大韓每日申報》1908년 11월 3일자 논설, 「有學校無教師之歎」, 12월 6일자 논설, 「警告教育家諸公」.

40) 유한철, 「한말 사립학교령 이후 일제의 사학 탄압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65-103쪽; 김형목,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앙사론》6, 76-77쪽.

〈표 1〉 대한제국기 안악지역 주요 사립학교 현황

학교명	위치	설립자	교사진	교과목	학생수	출전
사립학교	안악	정현철; 군수				황1902.1.23
봉삼학교	안악 문화동	유지제씨	金玉哉; 교장, 金贊; 교감, 玉正; 찬교사, 金炳億·崔榮輝; 교사, 姜尙圭; 재무	연합운동회	70	大1907.3.13, 3.26, 7.10, 3.20, 3.22, 4.2, 4.25; 『서우』 17-37
양산학교	안악 읍내	김효영·김홍량	최광옥·김구·이광수			大1907.7.23
문화학교	안악 용문방			표치정 의연		황1907.2.27
기독교학교	안악 수석 상육리	박응하·노인국·김재겸 등 주민일동		구속을 학교로 전환		大1907.12.10
배영학교	안악	申大均; 전군수				大1907.6.29, 11.14, 1908.4.25, 10.16
창성학교	안악		김택영; 교장			황1907.12.25
일진회학교	안악					대1907.9.24
소학교	안악 동창	표치정·차경철·고기택 등	좌동		50	大1908.2.14
장흥학교	안악			마을 의연금		大1908.3.20
성내소학교	안악 성내동 소학교내	김효영·박사청		연합운동회 (황해지역)		大1908.4.3
봉천학교	안악 홀흥 온정동	변석규·박지학 등 발기	원도화; 교사	온천장세로 운영비 조달		대1908.4.23, 4.28, 6.17
하구학교	안악 순리방	고정화; 발기인			취지서	大1908.4.4

의 야만적인 탄압과 더불어 사회적인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계몽운동 확산에 따라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분위기는 교육열을 고조시켰다.⁴¹⁾

시세변화와 더불어 민족의식과 항일의식 고취는 당시 지식인에게 최대 관심사였다. 실력양성은 이들에게 자신의 사회적인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러한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교육적인 권리를 ‘의무’로서 인식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야학운동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2) 야학운동의 전개

안악군 야학운동은 1906년 동창리 배영학교 부설인 배영야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훈도인 차경철·표치정·김병옥·고기태 등의 무보수 교수가 40여 명에 달하는 호응을 받았다.⁴²⁾ 군수 이인규는 유지들과 협의한 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500호를 단위로 1개교 사립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 학무회는 이를 실행·지원하기 위한 조직체였다. 사립학교·강습소·야학 등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⁴³⁾ 양산학교 책임자인 백범 김구는 부설로 야학을 설립하였다. 그는 최명식과 함께 순회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문화운동을

41) 《大韓每日申報》 1908년 6월 5일자 기사, 「教育이 現今의 第一急務, 弄雲娘子」, 7월 7일자 논설, 「通俗教育의 必要」, 11월 7일자 논설, 「文法을 宜統一」, 11월 14일자 논설, 「國文研究會 委員諸氏에게 勸告함」, 11월 20일자 논설, 「聲討守錢奴」, 11월 28일자 논설, 「少年의 立志」;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22일자 론설, 「교육이 발흥할 도짐」, 11월 14일자 론설; 「국문연구회 위원제씨에게 권고함」, 11월 22일자 론설, 「소년의 립심」; 《황성신문》 1908년 10월 18일자 잡보, 「閱報可鮮」.

42)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6일자 잡보, 「스씨열심」;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16일자 잡보, 「四氏熱心」.

43) 《황성신문》 1908년 8월 27일자 잡보, 「五百戶의 一校」.

확산시켰다.⁴⁴⁾

용문면 원천동 유지들은 원천야학교를 설립하였다. 강인원은 사랑방을 교사로, 유원계는 교재를 제공하는 한편 강일규는 명예교사로서 활동하였다. 20여 명의 호응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시키는 요인이었다.⁴⁵⁾ 동면 덕동의 조문명·전운혁·오운영·김영식 등은 일신학교를 설립한 후 교사로 김택모를 초빙하였다. 불과 2~3개월만에 60여 명의 학도가 운집하자, 노동야학과 개설로 근로청소년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⁴⁶⁾ 문산면장 정학기와 유지 원종규·손세덕·송창순 등은 문창학교를 설립한 후 장흥범을 교사로서 연빙(延聘)하였다. 이에 주학생 53명과 야학생 27명이 매일 출석하는 등 교황(校況)의 활성화로 주민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다.⁴⁷⁾ 서산동 청년들은 친목회를 조직한 후 부대사업으로 목동야학교를 운영하였다. 임원인 장형재·김희문·임성하·한정교 등도 50여 명을 가르치자, 주민들은 의연금을 각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⁴⁸⁾ 이 단체는 미신타파·풍속개량 등 생활개선운동으로 영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교육운동은 시대 변화와 더불어 점차 일상화로 정착되어 나갔다.

재령군수 이용필과 유지 조광표·유몽택 등은 목동자립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에 1907년을 기점으로 재령군의 야학운동은 점차 확산되었다. 군수의 지속적인 지원, 해주총순 전봉훈과 세무주사 장석환의 후원, 유몽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열성으로 70~80여 명의 야학생이 출석하는 등 발전을 거듭할 수

44)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5일자 잡보, 「열심교슈」.

45)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17일자 잡보, 「三氏教育」.

46)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17일자 잡보, 「五氏熱心」.

47)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2일자 잡보, 「文山設校」: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4일자 잡보, 「면장열심」.

48)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17일자 잡보, 「親睦會의 設校」, 1909년 3월 6일자 학계, 「青年有志」.

있었다.⁴⁹⁾ 야학 명칭도 교육기관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국권회복에 기초한다는 ‘자립’이었다. 특히 연합운동회 개최는 재령 일대에 근대교육을 확산시키는 기폭제였다. 동군 해창의 유지들도 주민들과 협의한 후 의연금으로 창명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장 김주현과 교사 한병집 등은 창명야학교를 세웠다. 30여 명 초등목수의 호응은 교세를 떨치는 기반이었다.⁵⁰⁾

동군 좌울면장 김정홍은 동장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기집에 사립학교를 세워 남녀학생 60여 명을 가르쳤다. 그는 부설로 야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발전과 농업 발달을 도모하였다.⁵¹⁾ 그는 일제강점기에 계몽활동가로서 여성교육에 열성적이었다.⁵²⁾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한 군주사 정건유 등은 학무회를 조직하여 사립학교·야학 유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⁵³⁾ 동군 고을면 운수학교 학생 장종건·이달진은 유지 최제백의 후원으로 노동야학을 개설하였다. 이들은 야학 유지비 마련을 위해 나무장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주민들의 지원은 야학운동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요인이었다.⁵⁴⁾

49) 《大韓每日申報》1907년 7월 20일자 잡보, 「青年興學」, 1908년 1월 5일자 잡보, 「載敏奮發」, 5월 27일자 잡보, 「奇哉此兒」, 5월 28일자 잡보, 「載郡興學」, 7월 21일자 잡보, 「自立試驗」, 1909년 5월 6일자 잡보, 「遷于喬木」; 《만세보》1907년 6월 27일자 잡보, 「樵牧夜學」; 《대한매일신보》1908년 5월 26일자 잡보, 「괴특흔 〇 회」, 7월 18일자 잡보, 「목동교시험」, 1909년 6월 15일자 잡보, 「보조원의 보조」; 교남교육회, 「학계회보」, 《교남교육회잡지》5, 교남교육회, 1909, 59-60쪽.

50) 《대한매일신보》1908년 8월 14일자 잡보, 「창교신설」; 《大韓每日申報》1908년 8월 14일자 잡보, 「昌校新設」.

51) 《大韓每日申報》1909년 5월 7일자 학계, 「面長有人」; 《대한매일신보》1909년 5월 2일자 잡보, 「면장열심」.

52) 《동아일보》1920년 4월 27일자 지방통신, 「金氏의 美舉」.

53) 《대한매일신보》1909년 3월 11일자 잡보, 「정주스 권학」.

54) 《황성신문》1910년 4월 2일자 잡보, 「熱心哉兩學生」; 《대한매일신보》1910년 4월 3일자 학계, 「회한흔 일」; 《大韓每日申報》1910년 4월 3일자 학계, 「嘉尙哉其人」; 교남교

〈표 2〉는 당시 안악에 설립된 모든 야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당시를 ‘대표’하는 야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야학운동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한제국기 안악지역 야학 현황⁵⁵⁾

야학명	위치	설립자	교사진	교과목	학생수	출전
사립배영 야학교	동창리 배영 학교내	차경철·표치정 김병옥·고기태	좌동	보교과정	주학; 70 야학; 40	大1908.10.16., 대1908.10.16; 3년전 설립
야학과	양산학교내	양산학교	김구·최명 식; 교사	보교과정	50	대1908.7.5
원천야학교	용문 원천동	강인원·유원계 등	강일규		초동목 수; 20	大1908.9.17
야학과	용문 덕동 일신학교내	조문명·전운혁 오운영·김영식	김택모	한문·국 문·산술	30	大1908.11.17
야학과; 문창야학	문산 문창학 교내	정학기;면장, 원종규·손세덕 ·송창순	장홍범	보교과정	27	大1908.11.22 대1908.11.24
노동야학	청룡 구장동	최형서	좌동		초동목 수; 40	大1909.1.19, 6.24
목동야학교	세동 서산동	서산동친목회	장형재·김희 문임성하·한 정교임택권· 장응성	국문·일 반상식· 농사법	50	大1908.9.17, 1909.3.6
야학강습소	배영학교내	유지	오찬규·이춘 삼·차석삼		수십명	大1909.12.30
돈의야학교	안곡 춘파동	정기석·양지원	정기석·양지 원·박병모		30	대1910.3.1. 大1910.3.4

육회, 「학계회보」, 《嶠南教育會雜誌》3, 41쪽.

55) 김형목, 「부록 6. 한말 황해도 야학 일람표」, 『대한제국기 야학운동』을 정리함.

첫째, 설립 추세는 1908년을 시작과 동시에 최고로 달했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사립학교령」·「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시행과 동시에 많은 사립학교는 재정난으로 통·폐합되는 등 점차 ‘침체기’에 직면하였다. 안악도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계몽운동의 주요 활동가들은 신민회 회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1909년을 전후하여 해서지방은 이미 독립군기지건설론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다.

둘째, 여자야학이 전무한 사실이다. 이는 강고한 인습이 잔존한 상황에 따른 현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1910년까지 여자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180여 개교나 설립되었다. 이곳은 여성교육 시행을 위한 각종 단체의 활동이 비교적 왕성한 곳이었다.⁵⁶⁾ 그런데 여학교와 달리 여자야학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3·1운동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설립된 여자야학은 30여 개소였다.⁵⁷⁾ 이는 당시 여자야학에 대한 관심도를 반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야학을 통한 여성교육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⁵⁸⁾

셋째, 표면상으로 종교기관·단체에서 설립한 야학은 거의 전무하다. 해서·서북지방에 설립된 상당수 사립학교는 선교사업의 일환이었다. 더욱이 1920년대 초반 엽윳청년회·기독교청년회·기독교여자청년회·기독교면려회 등이 야학운동을 주도한 사실과 대비된다.⁵⁹⁾ 이는 사립학교설립운동에 치중한 반면 야학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사실을 의미한다. 교회 부설인 야학이 전

56)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09-221쪽.

57) 김형목, 「한말·1910년대 여자야학의 성격」, 《중앙사론》 14, 한국중앙사학회, 2000, 44-45쪽.

58) 김형목, 「1906-1910년 서울지역 야학운동의 전개 양상과 실태」, 《향토서울》 5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9, 183~184쪽; 김형목, 「한말·1910년대 여자야학의 성격」, 45-46쪽.

59)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176-179쪽.

무한 사실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기독교인의 야학에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구·김홍량·최명식·최광옥 등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넷째, 노동자·농민·초동목수 등이 직접 야학을 설립하였다. 민중이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실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3·1운동기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이었다. 야학은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 ‘주민교육운동’⁶⁰⁾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활 공간이었다.⁶¹⁾ 안악군 서산동 목동야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야학은 사립학교 부설이었다. 그런 만큼 교육시설이나 재정적인 기반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사립학교조차도 설립된 지 1~2년만에 운영난으로 폐교되는 경우가 많았다. 야학은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운영비 확보를 위한 여러 모금활동은 이를 반증한다. 물론 설립·운영자 열성과 야학생 향학열 등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요인이었다. 실력양성은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당면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3. 안악 근대교육에서 백범의 역할·위상

백범은 1904년부터 황해도를 중심으로 교육운동에 전념했다. 이른바 일어(日語)학교의 성행은 곧바로 나라 운명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에서 기인되었다. 장련 사직동 오인형 사랑방에 학교를 설립하였

60) 김중섭, 「일제 식민 통치와 주민 교육 운동」,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한국사회사학회는 문집)》 제47집, 문학과지성사, 1995, 234-235쪽.

61) 김형목, 「1920년대 전반기 서울지역 야학운동의 분화·발전과 성격」, 『중앙우수논문집』 2, 중앙대학교학원, 2000, 89-92쪽.

다. 당시 상황은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오진사(오인형-필자주) 집 큰사랑에다 학교를 열었다. 오진사 큰딸 신애와 아들 기수, 오봉형의 두 아들과 오면형의 자녀, 오순형의 두 딸을 중심으로 학교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의 자녀 몇 명을 모집해서, 방 중간에 칸막이로 막아 남녀의 자리를 나눠 앉혔다.……그(오순형-필자주)는 나와 같이 예수교에 전력하기로 마음을 같이 하고서, 학생을 가르치며 예수교를 선전하였다.⁶²⁾

현지에 광진학교(장련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자 백남훈에게 이를 인계하고 허곤·장의택 등과 교원으로 부임했다. 재직 중 평양 예수교가 주최한 사범강습에 참가하였다. 그는 방기창 목사 집에 기거하면서 최광옥을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장래 일을 논의”했다.⁶³⁾ 그와 만남은 후일 교육구국운동을 도모하는 인연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장련에서 운영된 학교는 봉양학교·광진학교·장련공립학교 등 명칭으로 나타난다.⁶⁴⁾

1905년에는 진남포 예수교회 애헤청년회 총무로서 서울 상동교회에서 열린 을사늑약 반대운동에 참가했다. 당시 참여한 기독교 단체들은 「구국기도문」을 발표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을사늑약을 반대하였다. 이후 장련에서 1906년 문화로 근거지를 옮겼다. 서명익숙에서 역시 교육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였다. 이 교육기관이 정확하게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음 기

62) 김구, 『백범일지』, 186-187쪽.

63) 김구, 『백범일지』, 187쪽; 이명화, 『근대화의 선각자 최광옥』,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135쪽.

64) 한규무, 「1900년대 김구의 황해도 장련·문화·안악 이주와 계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63-74쪽.

3개 학교의 관련성이나 백범이 재직한 학교에 대한 분석이 자세하다.

사에서 추론할 수 있다.

本郡 艸里坊 西明義塾을 該坊內 有志文明之士가 義捐鳩財하여 私立開校하였
는디 校長은 本郡守 金會聲氏오 校監은 禹東湘 禹錫奎 兩氏오 教師는 禹貢三氏
와 安岳人 姜周卿氏인디 熱心教授함으로 學徒가 日加月增하여 乃至於 五十餘名
이오 事務員은 禹績昌 禹鳳命 禹相律 柳武赫 張澤善 禹景植 禹德善 鄭楠諸氏오
會計員 禹楨國 禹錫龍 兩氏인디 熱心視務함이 該校文明之將就는 於此可知오 去
三月十九日에 本校長이 學徒勸獎之意로 郡內四五學校를 請會于本邑하여 大運
動試驗後에 親自捐廩薄俸하여 施賞夥數함이 此不啻學徒之勸獎이라 觀光者無不
稱頌本倅之政化及民이오 自此로 菴 文化가 文化되었다고 頌聲하기로 不勝感荷
하여 茲에 廣佈함 文化士民.⁶⁵⁾

이곳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다시 1907년 교육운동 본거지인 안악으로 이
주했다.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
하기에 이곳이 최적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교육 중심지인 안악에 안악면학회가 1906년 11월에 조직되었다. 임원진
은 평양에 있는 최광옥을 초청하여 양산학교에서 하기 사범강습회를 개최하
였다. 이는 우후죽순처럼 도내에서 설립되는 사립학교설립운동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사 양성에 목적이 있었다. 최광옥의 발의에 따라 신민회원인 최명
식·김용제 등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구국운동을 확산시키려는 의도
였다. 이듬해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양산학교에 사범강습소를 운영하기로 계
획을 세웠다.⁶⁶⁾ 목적은 청년들을 계몽하여 첫째는 민족의식 고취, 둘째는 근
대교육을 장려하여 많은 학교를 세우는 동시에 교사들을 양성, 셋째는 농사

65) 《황성신문》 1907년 6월 3일자 광고.

66)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자 잡보, 「사범강습」.

기술을 개량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1907년 제1회 강습회는 안악은 물론 재령·송화·신천·은율·장령 등지 소학교 교사와 교사 지망생 70여 명이 호응하였다. 강사진과 담당과목은 다음과 같다.

최광옥 : 국어·생리학·물리학·식물학·경제원론

최명식 : 산술

고정화 : 한국사

이광수 : 서양사

제2회 강습회는 이듬해에 개최되었다. 제1회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경기도 등지에서도 수강생이 몰려들어 300여 명에 달하는 대성황이었다. 강사진은 최광옥 이외에 김두화·김낙영·최재원·김낙희·방신영·최재형 등이었다.⁶⁷⁾ 열성적인 강의에 수강생들은 대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백범은 이들에게 위생상 단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자 전원이 동참했다.⁶⁸⁾

사범강습을 마친 후 양산학교는 중등부와 소학부로 분리되었다. 중등부는 김홍량이 교장을 맡고, 소학부는 백범이 맡았다. 생도 30~40명은 1~3학년으로 구분하여 가르쳤다. 8월 22일에는 양산학교에서 관내 각 학교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교과과정 통일을 결의하였다. 학생들의 소통과 정정당당한 경쟁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황해도에 소재한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연합운동회 개최도 결의했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단련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시대변화를 일깨우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 특히 폐막식 후에 개최되는 연설회는 시국토론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생생한 교육현

67) 《황성신문》 1908년 7월 7일자 잡보 「海西講習」, 7월 26일자 잡보, 「講習所發達」;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7일자 잡보, 「講所新設」, 7월 17일자 잡보, 「師範開學」.

68) 최명식, 『안악사건과 삼일운동과 나』, 공허전기편찬위원회, 1970.

장이나 마찬가지로였다.

1909년 제3회 강습회는 전국 각지에서 700여 명이나 참여했다. 장응진과 옥관빈은 계몽강연을 담당한 반면 이시복·한필호·이상진·박도병 등은 학과목을 맡았다. 강습회는 대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사범강습회 종료에 즈음하여 김홍량은 양산소학교에 중학교 설치를 제안하여 안악유지들로부터 찬동을 얻었다. 최용권 3천원, 원명로 3천원, 김홍량의 조부인 김효영 3천원 등을 희사하여 중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교장은 김홍량, 주임교사는 한필호·이시복·이상진, 교사는 최명식·박문엽 등이 임명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백범은 부설인 야학과도 맡았다. 그는 최명식과 함께 순회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계몽운동 확산에 전력을 기울였다.⁶⁹⁾ 당시 설립된 양산중학교는 안악사건으로 학교 관계자들이 체포되면서 폐교되고 말았다.

최광옥과 함께 1908년 조직한 해서교육총회에서는 학무총감도 맡았다. 이 단체는 1906년 조직된 안악면학회를 황해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육구국단체였다. 임원진은 회장 송중호, 고문 노백린·장의택, 총무 백범 등이었다. 백범은 도내 학교 설립을 독려하기 위하여 순회시찰 길에 올랐다. 각 면마다 ‘의무학교’인 면립학교 설립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시찰하는 동안 환등회·강연회를 통한 계몽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인사들과 만났다. 배천군수 전봉훈과 유지 등을 만나 학교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다. 송화·재령·장련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각지를 순방하면서 목격한 것은 일본군이 무단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듬해 제2차 총회에서는 노백린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⁷⁰⁾

69)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5일자 잡보, 「열심교슈」.

70) 이명화, 「국내에서의 항일구국운동」, 『노백린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67-70쪽.

몇 년 만에 송화읍의 광경을 보니 해서 의병을 토벌하던 요새인 읍내 관사는 거의 왜가 점령하고 있었다. 수비대·헌병대·경찰서·우편국 등의 기관이 들어찼고 이른바 군청이란 것은 일반 살림집에서 업무를 보는 광경에 분한 마음이 솟구쳤다.⁷¹⁾

교육기관에 대한 침투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읍내까지도 거의 점령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비참한 광경을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자신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참담한 심정을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과거 일청, 일아 두 전쟁 때에는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신뢰하는 감정이 극히 두터웠다. 그 후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 주권을 상하는 조약을 맺음으로 우리의 약감정이 격발되었다. 또 일병이 촌락으로 횡행하며 남의 집을 막 들어가고 닭이나 달걀을 막 빼앗아서 약탈의 행동을 하므로 우리는 배일을 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일본의 잘못이요 한인의 책임이 아니다.⁷²⁾

양산학교 소학부를 담당하면서 재령에 있는 보강학교 교장도 겸임하였다. 보강학교는 해서교육총회에서 관심을 기울인 학교 중 하나였다. 그런 만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정도였다고 짐작된다. 백범의 열정적인 안락지역에서 교육활동은 상무정신(尙武精神)을 고취시키는 교육구국운동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민회 등 외부 세계와 교류는 시세변화에 부응하는 민족교육 산실로서 양산학교가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71) 김구, 『백범일지』, 199쪽; 최혜주, 「백범김구의 신민회 시기의 교육사상과 교육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5, 94쪽.

72) 김구, 『백범일지』, 188-189쪽; 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297쪽.

4. 맺음말

대한제국기 안악지역은 황해도 계몽운동의 중심지로서 부각되었다. 천주교와 기독교 전래는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주민들의 정서는 새로운 종교에 대하여 크게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는 등 외래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조선시대 중앙정부로부터 오랫동안 받은 소외는 역동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종교적인 영향은 가치관은 물론 일상사 변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확산되었다. 개량된 영농법과 원예기술 등은 농민들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기제였다. 농업생산력 향상과 더불어 상업적인 작물재배는 농가 경제에 상당한 이윤을 초래하는 ‘황금작물’로서 각광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안악을 대표하는 이른바 ‘3대 부호’는 이러한 변화에 재빨리 편승한 경우였다. 이들은 재력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전개되는 계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제(子弟)는 물론 탁월한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을 국내외에 유학시키는 등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안악을 ‘안악다운 안악’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1908년 백범은 이곳으로 이주한 이래 적극적인 교육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존에 조직된 안악면학회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주춧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양산학교 운영자로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순회강연도 실시했다. 특히 양산학교에서 거행된 하기 사범강습회는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3회에 달한 강습회는 황해도는 물론 교육구국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안악면학회를 확대한 해서교육총회는 교육과정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면학서포(勉學書鋪: 안악면학회가 설립한 서적출판기관-편집자 주) 운영은 이러한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

되었다. 환등회와 순회강연회는 외부 세계와 소통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신민회와 연계는 문무쌍전을 겸비한 독립군 지도자 양성으로 이어졌다. 국외 독립군기지건설은 이와 맞물려 추진되었다. 백범은 양산학교를 근거지로 삼아 도내 주요 사립학교와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강제병합 이후 국외독립운동기지는 교육구국운동과 결합되면서 여러 난관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백범의 계몽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